

해남군의 반격...셋째부터 대학 학자금 준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자리 영광군에 내주자 파격 출산정책 제안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였던 해남군이 2019년 영광군에 자리를 내줬다. 해남군은 1.89명, 영광군은 2.54명으로 격차도 컸다. 충격을 받은 해남군이 셋째아이부터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내놨다. 영광군에 대한 반격의 카드인 셈이다. 해남군이 다자녀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셋째 이상인 자녀로 확대한다.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넷째 이상 자녀에서 셋째 이상 자녀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를 위해 해남군은 지난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부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으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은 10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신생아 건강보험, 중·고등학교 교복비,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등과 둘째 이상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광산산업개발 투자협약 체결 대마화평농공단지 4만7202㎡ 개발

2022년까지 51억원 투입

영광군은 지난 14일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대마화평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유)광산산업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대마면 화평리 일원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대마화평농공단지(약 4만7202㎡(약 1만4278평) 규모로 단지를 조성한다. 7개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입주할 예정이며, 업

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지난 7월말 대마화평농공단지 지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친환경 농공단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기업 입주 등이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용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증설...연간 800t 공급

신안군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 공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용미생물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생리활성물질 생성과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 작물 생육 촉진과 병해충예방·축산악취 제거,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미생물은 화학농약과 비료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농촌에서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다양한 용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신안군은 매년 고초균 등 4종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농수축산업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용미생물 배양장과 배양설비를 증설했다. 이로써 연간 공급량이 500t에서 800t으로 확대됐다.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새우 양식 어가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안의 한 무화과 재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신안군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 공급량을 60% 확대한다. <신안군 제공>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무화과의 과육이 단단해지고 병해충 발생도 현저히 줄었다"고 반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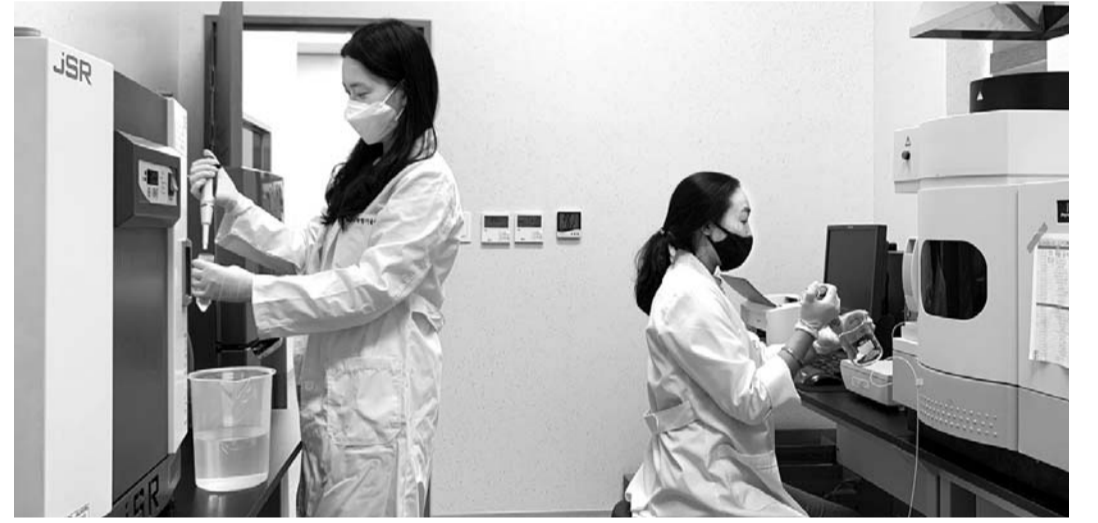
완도 노인 절반 '코로나블루' 호소

중증 우울 6.6%·경증 42.8%...군, 전문의료진 심층상담 무료 지원

완도군은 군민들이 겪는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해 전문 의료진을 연계한 무료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감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심리방역 대책으로 노인 467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8명(6.6%)이 중증 우울감을, 2002명(42.5%)이

가벼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일반상담 316건, 자문의사 상담 22건, 치료기관 연계가 10건을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소에 자주 방문하던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이 우울증을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완도지역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4%인 1만 5946명이다. 이 가운데 3.9%인 2004명이 홀로 산다. 전문의료진 심층상담은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심층 심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상담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일반인 및 격리자 중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방법은 원하는 시간에 전화 통화로 진행되며, 최대 3회 진행 후 계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꾸준한 사례관리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 속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면·식사·휴식·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가족·친구·동료·이웃과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힘든 감정 나누기 ▲공신력 있는 기관·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기 ▲잡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등을 제안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구축한다.

진도군, 농산물 안전성 신뢰 높인다

25억 투입 2022년 분석실 구축...320가지 성분 분석

진도군은 농촌진흥청 주관 '2021년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도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25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구축한다. 이 곳에서는 30여종의 분석장비로 320가지 성분을 분석한다. 지역 내 로컬푸드와 학교 급식 납품 농산물, 유통 단계 안전성 모니터링을 한다. 작목별 농약 잔류허

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할 경우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 출하 연기, 폐기처분, 과태료처분 등 해당 농가에 불이익을 준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 사업 시행을 통해 관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섬에서 생산된 농산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